

최적성이론에 의한 모음 /i/의 두 가지 음가 고찰*

조성문
(한양대)

Cho, Sung-moon. 2002. An optimality-theoretic account of two sound values in Korean vowel /i/.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8.2. 273-28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constraint-based account of two sound values in vowel /i/. When the aspects of change are analyzed in relation to vowel /i/ of /k/-deletion, onset restriction, and palatalization in Middle Korean, we can observe two different appearances of a single /i/. One change occurs to an adjacent vowel /i/ in an consonant, the other doesn't change it at all. But it has not clarified explicitly the reason why it causes such the difference. Because preceding researchers have a fixed idea as front vowel in Contemporary Korean as good as Middle Korean about vowel /i/, they may either use an ambiguous name as a special vowel /i/ or define it as a semi vowel /y/. In this paper, as most of Altaic Family to which Korean seems to belong have 8 vowel systems, I intend to investigate the palatal contrast between front vowel and back vowel. Likewise, I think that Korean language undertook such similar changes as Altaic Family, too. Therefore, this paper gives a unified explanation for double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vowel /i/ in Middle Korean withi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Optimality Theory. (**Hanyang University**)

Keywords: Korean vowel /i/, Middle Korean, k-deletion, onset restriction, palatalization, Altaic Family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최적성이론을 이용해서 모음 /i/가 두 가지 음가를 가졌다는 추정을 증명하는 것이다. 중세국어의 모음 /i/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ㄱ/ 탈락, 구개음화, 두음법칙’ 등의 변화 양상을 분석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하나인 /i/가 사실은 두 가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¹ 하나는 /i/에 인접한 자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전혀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특수한

* 이 논문은 2002년 한양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¹ 모음 /i/가 두 개의 음가를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국어의 모음조화 현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이미 조성문(2001)에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i/ 모음이라는 불명확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반모음 /y/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권재선 1994, 우민섭 2001). 그것은 중세국어의 모음 /i/가 현재와 다른 전설모음인 구개모음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i/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어떤 뚜렷한 성과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모음 /i/는 중요한 음운변화의 동화주로서 그 수행기능이 매우 활발하다. 뿐만 아니라 /i/에 다른 모음이 결합되면 그 동화력이 그 어떤 모음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중세국어의 모음 /i/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곧, 동화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ɣ/ 탈락’ 현상은 경우에 따라 발생하거나 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고, ‘두음법칙’과 ‘구개음화’ 같은 현상은 출현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과연 중세국어 당시의 모음 /i/는 현재와 동일한 음가를 가진 모음이었나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그 의문은 자음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i/와 그렇지 않은 /i/가 표면적으로 같은 /i/로 나타났더라도 그 기저형이 다른 것이라고 봐야 풀릴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세국어의 모음 /i/가 두 개의 다른 음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가정을 세우고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모음 /i/는 전설모음(i)이지만 그 당시에는 후설모음의 /i/>(*i/)도 함께 존재했다는 추정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 근거가 되는 모음체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i u ɾ i u ɾ	
ö —	ɔ ·
a ɾ	a ɾ

이러한 가정은 국어가 알타이제어에 속한다는 학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알타이제어에는 전통적으로 터키어, 몽고어, 만주어 등 세 어파만을 소속시켜 왔는데, 추후에 이들 언어 외에 우리 국어도 이 어족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국어와 이들 언어와의 친족관계가 비교적 튼튼한 기반 위에서 정립된 것은 20세기에 와서 핀란드 학자 G. J. Ramstedt에 의해서였다. 물론 아직까지 알타이제어설이 명확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설에 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그러한 가설을 인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알타이제어에 속하는 터키어나 몽고어 등의 고대단계를 보면 모두 전설과 후설의 구개적 대립을 보이는 모음체계를 보인다. 그 점에 착안하여, 국어도 역시 그러한 단계를 거쳤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그 가설에 의하면 고대국어 이전의 모음 /ɪ/는 전설과 후설의 구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의 어느 시기에 통시적인 변화를 거쳐 후설의 /ɪ/가 전설의 /ɪ/로 통합되면서 /ɪ/는 중립모음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현대국어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어사적인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세국어에서 모음 /ɪ/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 분석하고, 그 성향에 따라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두 가지의 분류를 시도하려 한다. 그래서 먼저 모음 /ɪ/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ㄱ/ 탈락’ 현상부터 논의해 보고, 그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음 /ɪ/와 관련 있는 ‘두음법칙, 구개음화’ 현상을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또한 후설모음 /ɪ/가 완전히 사라진 근대국어의 경우도 중세국어와의 비교를 위해 함께 논의의 대상에 포함하겠다. 각 현상별로 최적성이론의 제약을 통해서 그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며, 시대의 변화도 역시 제약 등급의 변화로 설명할 것이다.

2. 모음 /ɪ/와 관련된 음운 현상

중세국어의 모음 /ɪ/와 관련된 음운현상으로는 ‘ㄱ/ 탈락, 두음법칙, 구개음화’를 들 수 있다. 이 현상들은 모두 /ɪ/와 관련을 가지면서도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ㄱ/ 탈락’ 현상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2.1 /ㄱ/ 탈락

중세국어 시기에는 모음 /ɪ/ 뒤에서 /ㄱ/이 탈락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 유독 /ɪ/ 뒤에서 /ㄱ/ 탈락이 활발했던 원인은 그 동안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다. 또한 모음 /ɪ/ 뒤의 /ㄱ/ 탈락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고, 같은 환경에서 /ㄱ/이 유지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근대국어 이후에는 /ɪ/ 뒤에서 /ㄱ/이 탈락했던 형들이 모두 원형으로 복귀하여 모음 /ɪ/ 뒤에서도 /ㄱ/이 존속되었다. 이러한 특이한 현상은 모음 /ɪ/가 전설모음이라고만 해서는 그 원인을 밝힐 수 없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탈락하는 경우

는 모음 /ㅣ/가 후설모음이고, 탈락하지 않는 경우는 전설모음이라고 보고 이를 증명하려 한다.

중세국어에서는 /ㅣ/ 모음 뒤에서 /ㄱ/이 탈락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2) ㄱ. 업거늘(龍飛御天歌 20)
 ㄴ. 최호거든(龍飛御天歌 6)
 ㄷ. 업건마론(龍飛御天歌 34)
 ㄹ. 그리습거나(月印釋譜 2:66)
 ㅁ. 브리고(釋譜詳節 9:14)

그런데, 같은 환경인데도 모음 /ㅣ/ 뒤에서 /ㄱ/이 탈락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3) ㄱ. 방식이어늘(杜詩諺解 4:56)(>방식이거늘)²
 ㄴ. 쇠어나(釋譜詳節 9:15)(>쇠거나)
 ㄷ. 승적이어든(月印釋譜 序:23)(>승적이거든)
 ㄹ. 여르미오(月印釋譜 1:12)(>여름이고)
 ㅁ. 다시언마론(龍飛御天歌 17)(>다시건마론)

이처럼 같은 환경인데도 /ㄱ/이 /ㅣ/ 뒤에서 탈락하지 않거나 탈락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³ 이것은 모음 /ㅣ/의 음가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해야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만약 하나였다면 이렇게 상반된 두 개의 현상을 보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는 근대국어에서도 발견된다. (3)의 예들은 모두 근대국어 이후에는 오히려 /ㄱ/이 탈락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점은 모음 /ㅣ/가 중세국어와는 달리 근대국어의 시기에 와서 하나의 음가만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전설모음만으로 그 특성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의 변화 양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² () 안의 자료는 근대국어 이후에 변화된 형태이다.

³ /ㄱ/ 탈락과 관련한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형태로 뚜렷이 구분되었다. 지금까지 같은 형태소가 두 가지 형태를 다 갖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4) ㄱ. 이어늘[iənɪl] > 이거늘[igənɪl]

ㄴ. 이오[io] > 이고[igo]

2.2 두음법칙

두음법칙에서도 모음 /i/의 음성적 특질을 살필 수 있다. 두음법칙이란 일부의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다. ‘ㄷ, ㅌ, ㄷ, ㅌ, ㅌ’ 앞에서의 /ㄴ/이 탈락하고, ‘ㄷ, ㅌ, ㅌ, ㅌ, ㅌ, ㅌ, ㅌ’ 앞의 /ㄴ/은 /ㄴ/으로 변하는 현상이 그것이다. 그런데 중세국어 자료에서는 두음법칙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ㄴ/이 모음 /i/ 앞에서 탈락하지 않는 것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5) ㄱ. 니(釋譜詳節 19:7)⁴

ㄴ. 니별(二倫行實圖 5:4)

15세기에는 ‘니, 니별’ 등이 자연스럽게 쓰였다. 그것은 그 당시 그 발음이 편했기 때문이다. 중세국어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였던 것은 /ㄴ/이 구개비음으로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후속하는 /i/모음이 후설모음의 특성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니, 니별’ 등의 /ㄴ/은 근대국어 이후에 탈락한다. 즉, 후속하는 구개모음 /i/ 앞에서 구개비음화하여 [ɲ]로 변한 후 구개음 중복으로 탈락하는 것이다. 그 현상은 다음과 같다.

(6) ㄱ. 니[ni] > 이[i]

ㄴ. 니별[nibjəl] > 이별[ibjəl]

이 현상은 모음 /i/가 후설모음의 특성이 없어지고 전설모음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계는 뒤에 최적성이론의 적용을 통해서 확인하겠다.

⁴ 이 외에 ‘냐, 녀, 뇨’ 등의 예도 같은 구개음화를 겪었는데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는 문헌을 찾지 못해서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2.3 구개음화

구개음화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도 중세국어 모음 /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학자간의 이견이 있으나 구개음화 발달 시기는 대체로 16세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7)과 같이 중세국어에서는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7) ㄱ. 덮(法華經諺解 1:13)

ㄴ. 튜존ㅎ니라(小學諺解 5:45b)

중세국어에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못한 원인은 구개자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그래서 /ɳ/, /ɛ/은 [č], [čʰ]가 되지 못했고, ‘말이, 같이’ 등은 ‘마지, 가치’로 표기될 수 없었다. 물론 그 원인에는 모음 /ɨ/가 전설모음만이 아니었다는 점도 포함할 수 있겠다.

한편 16세기 이후 근대국어 시기에 오면 구개음화가 발생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된다.

(8) ㄱ. 말이 [mati] > [mačɨ]

ㄴ. 같이 [katʰɨ] > [kačʰɨ]

이렇게 구개음화가 발생한 것은 치경음이 우선 구개음으로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동화주인 모음 /ɨ/가 모두 전설의 구개모음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관계 역시 최적성이론의 적용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3. 최적성이론의 적용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ㄱ/ 탈락, 두음법칙, 구개음화’ 현상은 모두 모음 /ɨ/의 특성에 관련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자료들을 대상으로 최적성이론을 적용하기로 하겠다. 모음 /ɨ/가 전설과 후설의 특성을 중세국어 시기에 모두 가지고 있었다는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ㄱ/ 탈락’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고, ‘두음법칙’이나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을 최적성이론의 제약으로 설명할 것이다. 또한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난 모음 /ɨ/와 관련된 세 가지 음운현

상의 변화를 제약등급의 변화로 설명하게 될 것이다.

3.1 중세국어의 단계

이 시기에서는 전설모음 /i/ (/i/)와 후설모음 /ɨ/ (/ɨ/)가 모두 관여했다는 가정 아래 다음과 같은 유표성 제약과 충실성 제약들을 설정할 수 있다.

(9) OCP: *X X

| |
[F] [F]

같은 자질을 갖는 두 분절음의 연속은 허용할 수 없다.

(10) *pw[n{i, j}]:⁵

i나 j 앞에 있는 n은 단어 첫머리에서 발화할 수 없다.

(11) Ident-IO(F):

입력형과 출력형에 대응하는 분절음은 [α F] 자질에 대해서 일치하여야 한다.

(12) Max-IO:

입력형의 모든 분절음은 출력형에 대응소를 가져야 한다.

유표성 제약 (9)는 같은 특성을 갖는 분절음이 연속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ɨ/ 탈락’과 ‘구개음화’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10)은 ‘두음법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정하였다. 이러한 유표성 제약에 상대되는 충실성 제약은 (11)과 (12)에 Ident-IO(F), Max-IO로 제시하였다.

이 제약들의 등급은 (13)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이 제약 등급을 가지고 중세국어 당시의 ‘/ɨ/ 탈락, 두음법칙, 구개음화’ 현상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13) OCP ≫ Ident-IO(F) ≫ Max-IO ≫ *pw[n{i, j}]

⁵ B. Lee(2001: 107)에서는 한자어와 영어 차용어에서의 유음 변화를 설명하면서 *pw(ni, ny)를 제시한 바 있다.

3.1.1 /ㄱ/ 탈락

/ㄱ/ 탈락 현상은 모음 /ㅣ/가 전설모음이나 후설모음이나가 아주 중요하다. /ㄱ/은 전설모음 /ㅣ/와 결합하면 탈락하지 않았고, 후설모음 /ㅓ/와 결합하면 탈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각각을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4) /ㅂ리고/ → [브리고](전설모음과 결합하는 경우)

/p _Δ ri+ko/	OCP	Ident-IO(F)	Max-IO
ㅂ리고. p _Δ riko			
ㄴ. p _Δ riko	*!	*	
ㄷ. p _Δ rio			*!
ㄹ. p _Δ rio		*!	*

(15) /이고/ → [이오](후설모음과 결합하는 경우)

/i+ko/	OCP	Ident-IO(F)	Max-IO
ㄱ. iko	*!		
ㄴ. iko		*!	
ㅓ. io			*
ㅇ. io		*!	*

(14)에서는 모음 /ㅣ/의 입력형이 전설모음이기 때문에 뒤의 /ㄱ/이 탈락하지 않은 (ㄱ)이 최적형으로 선택된 것이다. 반면에 (15)에서는 모음 /ㅣ/의 입력형이 후설모음이기 때문에 뒤에 온 /ㄱ/이 탈락한 (ㄷ)이 최적형으로 선택된 것이다. 두 경우 모두 OCP 제약이 최상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모음 /ㅣ/를 전설과 후설의 두 음가로 구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1.2 두음법칙과 구개음화

앞에서 ‘/ㄱ/ 탈락’의 이중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음 /ㅣ/의 기저형을 전설과 후설의 두 개로 설정하였고, 또한 그것을 최적성이론으로 증명하였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모음 /ㅣ/와 관련을 맺고 있는 ‘두음법칙’이나 ‘구개음화’ 현상에도 무리없이 적용되는지를 입증하도록 하겠다.

중세국어 시기에 어두 자음 /ㄴ/에 대한 두음법칙은 작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두 자음 /ㄴ/에 전설모음 /i/나 후설모음 /ɨ/가 오더라도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면 안 된다. 그것을 증명하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6) /ni/ → [니](전설모음과 결합하는 경우)

/ni/	OCP	Ident-IO(F)	Max-IO	*pw[n{i, j}]
ㄴ. ni				
ㄴ. nĩ		*!		
ㄴ. ɲi	*!	*		*
ㄴ. ɲĩ		**!		
ㄴ. i			*!	
ㄴ. ĭ		*!	*	

(17) /ni/ → [니](후설모음과 결합하는 경우)

/ni/	OCP	Ident-IO(F)	Max-IO	*pw[n{i, j}]
ㄴ. nĩ				
ㄴ. ni		*!		
ㄴ. ɲĩ		*!		
ㄴ. ɲi	*!	**		*
ㄴ. ĭ			*!	
ㄴ. i		*!	*	

전설모음이 입력형인 (16)에서나, 후설모음이 입력형인 (17)에서나 모두 (ㄴ)이 최적형으로 선택되었다. 유표성 제약과 충실성 제약이 최적형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번에는 구개음화의 경우에 적용해 보겠다. 중세국어 시기에 구개음은 없었고 모두 치경음이었다. 그래서 모음 /i/를 전설모음이나 후설모음의 두 개로 보아도 어떤 변화도 발생하지 않는다. 각각을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8) /maid/ → [마디](전설모음과 결합하는 경우)

/mat+i/	OCP	Ident-IO(F)
ㅁㅅ. mati		
ㄴ. mati		*!
ㄷ. mači	*!	*
ㄹ. mači		**!

(19) /maid/ → [마디](후설모음과 결합하는 경우)

/mat+j/	OCP	Ident-IO(F)
ㅁㅅ. mati		
ㄴ. mati		*!
ㄷ. mači		*!
ㄹ. mači	*!	**

위의 예에서도 전설모음이나 후설모음에 결합함에 상관없이 모두 OCP 제약과 Ident-IO(F) 제약을 준수한 (18ㄱ)과 (19ㄱ)이 최적형으로 선택되었다.

그러므로 모음 /i/를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의 두 음가로 구분해도 중세 국어의 두음법칙이나 구개음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2 근대국어의 단계

근대국어 시기에 오면 후설모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음 /i/는 전설모음만 남게 된다. 또한 치경음이 구개음으로 바뀌고 구개음화도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 제약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20) *i: 후설모음 i를 발화할 수 없다.

(21) Palatalization-i(Pal-i):

전설모음 i와 그 앞 자음은 [back]에 있어서 일치하여야 한다.

이 두 제약은 변화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표성 제약이므로 모두 상위에 등급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세국어 시기의 제약등급(13)에도 변화가 생긴다. 두음법칙을 일으키는 *pw[n{i, j}] 제약이 상위로 올라가고 (20), (21)의 두 제약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다음 (22)

와 같다. 이 제약등급을 가지고 근대국어의 자료에 적용시켜 보겠다.

(22) *i ≻ Pal-i ≻ *pw[n{i, j}] ≻ OCP ≻ Ident-IO(F) ≻ Max-IO

3.2.1 /ɿ/ 탈락

이 시기에는 ‘/ɿ/ 탈락’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모음 /i/는 후설모음이 사라지고 전설모음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입력형이 전설모음이든 후설모음이든 /i/ 앞의 /ɿ/은 모두 그대로 남게 된다. 두 경우를 모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브리고/ → [브리고](전설모음과 결합하는 경우)

/p _Δ ri+ko/	*i	OCP	Ident-IO(F)	Max-IO
ㄷㄹ. p _Δ riko				
ㄴ. p _Δ r _Δ riko	*!	*	*	
ㄷ. p _Δ rio				*!
ㄹ. p _Δ r _Δ rio	*!		*	*

(24) /이고/ → [이고](후설모음과 결합하는 경우)

/i+ko/	*i	OCP	Ident-IO(F)	Max-IO
ㄱ. iko	*!	*		
ㄷㄹ. iko			*	
ㄷ. i _o	*!			*
ㄹ. io			*	*!

입력형에 상관없이 모두 /ɿ/이 탈락하지 않은 (23ㄱ)과 (24ㄴ)이 최적형으로 선택되었다. 유표성 제약 *i와 충실성제약 Max-IO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음 /i/의 입력형을 전설과 후설로 설정한 가설은 근대국어에서도 모두 입증됨을 알 수 있다.

3.2.2 두음법칙과 구개음화

여기에서는 모음 /i/의 입력형을 두 개로 설정해도 근대국어 시기의 두음법칙과 구개음화 현상이 설명되는지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다. 이 시기에 오면 어두의 /ㄴ/이 탈락하게 되는 두음법칙이 작용하게 된다. 다음 예를

보면 기저형이 전설모음 /i/이거나 후설모음 /ɨ/인 경우 모두 /ɮ/이 탈락한 것이 최적형으로 선택됨을 알 수 있다.

(25) /ni/ → [이](전설모음과 결합하는 경우)

/ni/	*i	Pal-i	*pw[n{i, j}]	Ident-IO(F)	Max-IO
ㄱ. ni		*!			
ㄴ. nɨ	*!			*	
ㄷ. ni			*!	*	
ㄹ. nɨ	*!			**	
ㅁ. i					*
ㅂ. ɨ	*!			*	*

(26) /ni/ → [이](후설모음과 결합)

/ni/	*i	Pal-i	*pw[n{i, j}]	Ident-IO(F)	Max-IO
ㄱ. nɨ	*!				
ㄴ. ni		*!		*	
ㄷ. nɨ	*!			*	
ㄹ. ni			*!	**	
ㅁ. ɨ	*!				*
ㅂ. i				*	*

(25)에서는 (ㅁ)이 비록 /ɮ/이 탈락하여 Max-IO를 어겼지만, 상위의 나머지 제약을 준수해서 최적형으로 선택되었다. (26)에서는 /ɮ/이 탈락한 (ㅂ)이 충실성제약을 어겼지만 상위의 제약을 준수해서 최적형으로 선택되었다. 모두 상위의 유표 제약 *i, Pal-i, *pw[n{i, j}]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두음법칙에서도 모음 /i/를 전설과 후설의 두 개로 설정한 가설은 무리 없이 증명되었다.

이번에는 구개음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6세기 후반 이후 구개음화가 발생함으로 해서 치경음은 구개음으로 변하게 된다. 전설모음 /i/와 후설모음 /ɨ/의 경우 모두 구개음화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27) /마이/ → [마지](전설모음과 결합하는 경우)

/mat+i/	*i	Pal-i	OCP	Ident-IO(F)
ㄱ. mati		*!		
ㄴ. matɪ	*!			*
ㄷ. mači			*	*
ㄹ. mačɪ	*!			**

(28) /마이/ → [마지](후설모음과 결합하는 경우)

/mat+i/	*i	Pal-i	OCP	Ident-IO(F)
ㄱ. matɪ	*!			
ㄴ. mati		*!		*
ㄷ. mačɪ	*!			*
ㄹ. mači			*	**

입력형이 전설모음인 (27)에서는 (ㄷ)이 상위의 *i, Pal-i 제약을 준수해서 최적형으로 선택되었다. 입력형이 후설모음인 (28)에서는 (ㄹ)이 상위의 *i, Pal-i 제약을 준수해서 최적형으로 선택되었다. 이 결과 역시 모음 /i/를 전설과 후설의 두 개로 설정하더라도 구개음화의 설명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최적성이론을 적용해서 모음 /i/가 두 가지 음가를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i/모음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변화 양상을 분석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하나인 /i/가 사실은 두 가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나는 /i/모음과 인접한 자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전혀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였는데, 그러한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중세국어의 /i/모음이 전설과 후설의 두 가지 음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가정에서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 개별적으로 취급되어 오던 ‘/ㄱ/ 탈락, 두음법칙, 구개음화’ 현상을 모음 /i/를 매개체로 하여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까지의 변화 양상을 통합적으로 설명하였다. 그 결과 모음 /i/를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의 두 개로 가정하여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ㄱ/ 탈락’ 현상과 ‘두음법칙, 구개음화’ 현상을 별개의 논의로 다룰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모음 /i/와 관련된 현상을 하나로 묶어 보자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권재선. 1994. “중세어의 두 가지 「ㅣ」의 음가 고찰,” *우리말 연구의 샘터*, 23-38. 연산 도수희 선생 화갑 기념논총 간행위원회.
- 김완진. 1963. “국어모음체계의 신고찰,” *진단학보* 24, 63-99. 진단학회.
- 김완진. 1971. *국어모음체계의 연구*. 일조각.
- 김차균. 1984. “15세기 국어의 단모음 체계,” *새결 박태권선생 회갑기념논총*, 137-158. 제일문화사.
- 박병채. 1972. *고대국어의 연구(음운론)*. 고려대 출판부.
- 박창원. 1986. “국어 모음체계에 대한 한 가설,” *국어국문학* 95, 313-343. 국어국문학회.
- 우민섭. 2001. “15세기 구개모음 ㅣ의 음성적 고찰,” *새국어교육* 제61호, 185-204. 한국국어교육학회.
- 이기문. 1972.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 이기문. 1987.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 이기문 · 김진우 · 이상억. 1984. *국어음운론*. 학연사.
- 이병근. 1971. “현대 한국방언의 모음체계에 대하여,” *어학연구* 7.2, 11-17. 서울대 어학연구소.
- 조성문. 2001. “최적성이론에 의한 모음조화의 변화 분석,” *음성 · 음운 · 형태론 연구* 7.1, 191-213. 한국음운론학회.
- AHN, SANG-CHEOL. 1998. *An Introduction to Korean Phonology*. Hanshin Publisher.
- RUBACH, JERZY. 2000. Backness Switch in Russian. *Phonology* 17, 39-6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CHIN-WOO. 1976. Diagonal Vowel Harmony?: Some Implications for Historical Phonology. *Journal of Korean Linguistics Vol. 7*, 23-44. The society of Korean linguistics.
- KIPARSKY, PAUL. 1968. *How Abstract is Phonology*. Reproduced by the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KIRCHNER, ROBERT. 1993. Turkish Vowel Disharmony in Optimality Theory. Paper presented at the Rutgers Optimality Workshop.
- LEE, BORIM. 2001. The Liquid Lexicalization and Nativization in Sino-Korean and English Loans.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7.1, 101-124. The Phonology-Morphology Circle of Korea.
- LEE, SANG-OAK. 1984. An Overview of Issues in the Vowel System and Vowel Harmony of Korean. *Language Research Vol. 20, No. 4*, 417-444.
- LEE, YONG-SUNG. 1993. *Topics in the Vowel Phonology of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 MCCARTHY, JOHN AND ALAN PRINCE. 1993. *Prosodic Morphology I: Constraint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Ms.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nd Rutgers University.
- MCCARTHY, JOHN AND ALAN PRINCE. 1995. Faithfulness and Reduplicative Identity. University of Massachusetts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8.
- PRINCE, ALAN AND PAUL SMOLENSKY. 1993. *Optimality Theory: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Grammar*. Ms. Rutgers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Colorado.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E-mail: mooni67@hanyang.ac.kr

Received: October 21, 2002

Accepted: November 26, 2002